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2024.12.16.
문 의	교감	이재흠	+65-6741-0778
	국제부장	이명국	070-4063-3995

2024 재외한국학교 동아리 경진대회 '얼씨구! 신나는 판소리' 동아리 장려상 수상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교장 유삼목)는 2024년 12월 9일 교육부 재외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4 재외한국학교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초등학교 이명국 교사(국제부장)가 '얼씨구! 신나는 판소리' 동아리를 출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동아리 경진대회는 전 세계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실시한 대회였다.
 - 공모 주제는 사물놀이, 악기연주, 춤, 미술 등 문화 활동 관련 동아리와 토론, 실험, 연구 등 교과·연구 관련 동아리 2개 부문으로 한정하였다.
-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이명국 교사(국제부장)는 “우리 학생들과 열심히 활동한 '얼씨구! 신나는 판소리' 동아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 유삼목 교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계발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붙임

‘얼씨구! 신나는 판소리’ 동아리 작품작 설명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판소리 동아리(지도교사 이명국)는 금요일마다 G2~G3 11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판소리 연습을 한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거나 판소리 가락을 익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의 유명한 눈대목을 배우고 판소리 발성을 연습하며 판소리의 깊이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고, 여러 차례의 공연을 통해 그 성과를 선보일 수 있었다.

아이들은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서는 과정을 통해 큰 성취감을 느꼈고,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한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였다. 판소리를 통해 얻은 자신감과 협동심은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되었으며,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 작품작 영상 중 일부 캡처 >



< 2024년 11월 27일 SKIS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공연 ‘판소리’ 축하공연 >

